

K3·K9·카니발 '쌍쌍'



# 기아차, 신차효과 기대이상

### 플랫폼·부분변경 모델 출시 이후 판매량 가파른 오름세...매출 견인

기아자동차가 기대 이상의 신차 효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K3, K9, 카니발 등 기아차가 올해 내놓은 신차들이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며,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K3의 경우 지난 2월 신형 차량이 출시된 후 1596대(1월 기준) 수준이던 판매가 3월 5085대, 4월 6925대 등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K9 역시 2월 39대, 3월 47대 수준을 이어갔던 판매량이 4월 플랫폼인 모델 '더 K9' 출시 이후 1222대로 점프했다.

지난 3월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된 카니발 역시 캠핑·레저 등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으며 판매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니발의 판매는 1월 4669대, 2월 3096대 수준에서 3월 부분변경모델이 출시된 후 5708대로 판매가 급증했고, 4월에는 8828대를 기록했다.

K3는 2012년 1세대 모델 출시 후 6년 만에 2세대 플랫폼(완전 변경) 모델로 다시 태어났다. 현대차그룹의 새 파워트레인 '스마트스 트림'이 현대기아차 양산차 중 처음 탑재된 차량으로, 1세대 차량보다 연료 효율성이 10% 개선됐다.

신형K3 가솔린의 공식 인증 연비는 1당 15.2km로, 경차 모닝(15.4km/1)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고출력 123마력(PS), 최대토크 15.7kgf·m의 성능을 갖췄다. 호랑이 꼬리 형상 그릴과 엑스 크로스(X-Cross) LED 램프 등이 적용돼 역동적 디자인을 자랑한다. 초고장력 강판을 확대 적용해 인장강도를 확보하고 7개의 에어백을 장착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량감지)를 기본 장착했으며 운전자의 경고(DAW),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후측방 충돌 경고(BCW) 등도 적용했다.

2012년 첫 출시 후 6년만에 플랫폼인 모델 '더 K9'은 기아차의 역량이 총집결된 모델이다. 더 K9은 '응축된 고급감과 품격의 무게'를

디자인 콘셉트로 개발했으며, 차별화된 시그니처 그래픽, 더욱 커진 차체에서 느껴지는 웅장한 품격이 특징이다.

최고급 대형 세단에 걸맞은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구축해 여유롭고 풍부한 가속감과 최상의 구동력을 제공한다. 가솔린 램다 3.8 V6 GDI, 가솔린 터보 램다 3.3 V6 T-GDI, 가솔린 터보 5.0 V8 GDI 등 총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3.8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315 PS, 최대토크 40.5kgf·m, 복합연비 9.0km·1(18인치 2WD) 기준의 엔진성능을 갖췄으며, 5.0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425 PS와 최대토크 53.0kgf·m, 복합연비 7.5km·1(19인치 AWD기준)의 파워풀한 성능을 구현했다. 트윈 터보차저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 출력 및 실용 성능을 향상시킨 3.3 가솔린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 370 PS, 최대토크 52.0kgf·m, 복합연비 8.7km·1(19인치 2WD기준)를 구현했다.

전 트림에 차로유지보조(LFA), 전방·후측방·후방교차 충돌방지보조(FCA·BCA·R·RCCA), 안전하차보조(SEA),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등 국내 최고 최다 수준의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가 적용됐다. 12.3인치 UVO 3.0 고급형 내비게이션, 시퀀셜(순차점등) 방식의 턴 시그널 램프를 포함한 풀 LED 헤드·리아램프 등을 기본 적용함으로써 주행안전성, 편의성을 동급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3월 한층 더 고급스럽게 돌아온 '더 뉴 카니발' 역시 입소문을 타며 가파른 판매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 뉴 카니발은 기존 카니발의 내 외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주행 성능을 높여주는 파워트레인을 장착했으며 다양한 안전, 편의사양을 적용했다.

더 뉴 카니발은 국산 미니밴 최초로 '전륜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부드러운 변속 응답성과 뛰어난 연료 효율을 보인다. R2.2 디

젤 엔진은 11.4km/1(9인승·18인치 타이어 기준), 램다III 개선 차체에서 느껴지는 웅장한 품격이 특징이다.

전면부는 신규 크롬 리더에어 그릴을 적용해 입체감을 높이고 범퍼를 새롭게 장착해 당당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화했다. LED 헤드램프와 LED 주간주행등, 아이스 큐브 타입 4구 LED 안개등으로 운전자의 시야도 개선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짝을 이루는 입체적인 범퍼 유니크한 디자인의 LED 리어램프로 신선함을 강조했다. 측면부는 조형미와 컬러감이 돋보이는 신규 알로이 휠을 적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했다.

첨단 안전 사양도 대거 적용됐다. '더 뉴 카니발'에는 기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을 개선해 전방 차량을 감지해 차간 거리를 자동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을 신규 적용했다. 또 차로 이탈 경고(LDW), 후측방 충돌 경고(BCW),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하이비 보조(HBA) 등이 적용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K3와 K9, 더 뉴카니발 등이 신차 출시 후 판매가 크게 늘었다"며 "입소문을 타며 점점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출시 직후부터 판매가 매일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신형 섀시 플랫폼 출시에도 불구하고 쏘렌토의 4월 판매 감소 폭이 크지 않았던 것도 긍정적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미국시장에 출시될 예정인 쏘울(MPV차종)은 기아의 북미 베스트셀러 모델 중 하나로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은 "세단과 SUV 차급 모두에서 신차가 투입되기 때문에 하반기 북미 판매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지용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에서도 의미있는 판매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4월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을 전년동월대비 감소

### 호남통계청, 건설 수주액 광주 늘고 전남 줄어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2% 감소했고, 전월대비 1.5%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분야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금속가공, 음료 등이 증가했고 자동차,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담배, 금속가공 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7.7% 감소했고, 전월대비 1.0% 증가했다.

광공업 재고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섬유제품 등이 감소하고 자동차,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이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23.0%, 전월대비 3.3% 각각 증가했다.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5으로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했다. 백화점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9%, 대형마트는 3.3% 각각 감소했다.

4월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984 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은 1914.5%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25.4%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6.4%, 토목부문은 52.0% 각각 감소했다.

4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석유정제, 식료품, 운송장비 등이 증가했고 1차금속, 기계장비, 비금속 광물 등이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했고 전월대비 6.7%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1차금속, 기계장비, 비금속광물 등이 감소하고 석유정제, 화학제품, 기타 운송장비 등이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 3.5%, 전월대비 11.7% 각각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비금속광물, 나무제품, 금속가공 등은 감소한 반면 석유정제, 1차금속, 화학제품 등이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14.1%, 전월대비 1.8% 각각 증가했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1.7로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했다.

4월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5087 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8.9% 증가했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은 65.8%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은 143.5%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은 392.0% 증가했으나 토목부문은 기계설치와 도로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74.7% 감소했다.

신봉우 기자



# 여름휴가, 해수욕장으로 떠나볼까?

해수욕장(장관 김영춘)은 전국 260개 해수욕장이 1일부터 차례대로 개장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해수욕장 중 가장 빠른 1일 개장하는 곳은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부산)이다. 이어 6월16일 대전(충남), 6월23일 합제(제주) 해수욕장 등이 문을 열고 송이도(전남) 해수욕장이 가장 늦은 7월 21일 개장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 창원외의 광안 해수욕장은 2002년 폐쇄 이후 16년 만인 오는 7월7일부터 재개장한다.

오후 9시 이후까지 야간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51개소다. 경포, 주문진 등 강릉시 9개 해수욕장과 낙산, 하조대 등 양양군 11개 해수욕장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개장할 예정이다.

개장 기간 해수욕장에서는 공군 블랙이글 에어쇼(강릉 경포), 모래조각 경연대회(태안 몽산포), 부산 바다축제(부산 해운대), 울산조선해양축제(울산 일산), 국제불빛축제(포항 영일대)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이외에도 콘서트, 가요제,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조개, 오징어 잡기 등 체험행사, 해변가에서 열리는 발리볼, 축구, 마라톤, 복싱, 프로야구 등의 대회도 열려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우선 지난 29일 지자체와 해경,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안전점검과 안전인력 운영 계획을 집중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개장기간 동안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오정우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올 여름 개장하는 260개 해수욕장은 각각의 개성과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수욕장을 찾아 호젓하게 휴가를 즐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해수욕을 즐기시고 음주입수 등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영국서 '최고 대형가전 브랜드' 선정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 영국 최고 권위 소비자연맹지 '위치(Which)'지가 주관하는 '위치 어워드(Which Awards) 2018'에서 '올해 최고의 대형가전 브랜드(Large Appliance Brand of the Year)'로 선정됐다.

위치는 약 1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소비자연맹지 2007년부터 매년 전문가들의 평가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동차, IT(컴퓨터·모바일), 가전 등 총 11개 부문별로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1개 브랜드를 선정해 '올해 최고의 브랜드'를 수여한다.

삼성전자는 특히 유럽의 전통 있는 가전 브랜드를 제치고 최초로 최고 수상의 영예를 안아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은 지난 1년간 위치에서 진행된 평가에서 '패밀리리브' 냉장고, '빅드라이브' 세탁기, 인덕션 쿡탑을 포함한 78%의 제품이 '베스트 바이(Best Buy)'에 선정되는 등 독보적인 결과로 올해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냉장고는 지난 1년간 위치가 평가한 냉장고 제품 중 최고 점수를 부여 받았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